

서호인의 '소설처럼'



소설가의 선한 영향력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21세기가 좋아. 22세기면 더 좋을 것 같아." 정세랑은 이렇게 말하는 작가다.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의 시작을 담당하는 짧은 소설(5쪽밖에 되지 않는다.) '미싱 핑거와 점핑 걸의 대모험'에 나오는 대사다. 한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이 대사는 더 나은 세상을 강력하게 원하는 작가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또한 8편의 소설에 실린 인물들을 다 만나고 나면 스티븐 핑거의 명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떠오름은 어쩔 수 없다. 앞의 핑거와 뒤의 핑거가 같은 한글 표기인 것은 우연이겠지만, 어찌지 운명이라고 너스레 떨며 우겨 보고 싶은 마음도 어쩔 수 없다.

크고 작은 분쟁은 멈추지 않고, 기후 변화에 인류의 삶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지구와 생명의 탄생 이후 인류는 그들에게 다할 수 없는 악역으로 치부되고, 아마도 사실이었지만 미싱 핑거-아니, 스티븐 핑거는 '우리는 어쩔거니 나 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류의 기성품과 공격성 그리고 폭력성은 서서히 줄어들어, 지금이 최소치라고 한다.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들은 감정 이입과 이타

심과 이성 등이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지나치게 낭만화되고 우리가 사는 현재는 반대로 악마화되었는데, 정확한 수치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악마와 천사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이고, 역사는 천사의 자리가 확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핑거 씨에 따르면, 정세랑의 문장은 명확한 사실이다. 1·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비롯한 끔찍한 살육이 자행되었던 20세기보다 21세기가 좋고, 우리가 잘만 해낸다면 22세기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잘 해낼까? 정세랑의 소설처럼 하면 된다. 혹은 하지 않으면 된다.

'목소리를 드릴게요'의 인물들은 선하고 담백하다. 실현 가능한 사랑을 낭만적으로 갈구하며, 상상 불가한 상황을 담담하게 통과해 낸다.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 이러한 인물의 특징을 극적으로 드러내 주는 작품은 아무래도 표제작 '목소리를 드릴게요'일 것이다. 일반적인 소설집이 일정한 분량의 작품을 골고루 배치시키는 데 반해, 이 책은 다섯 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작품에서부터 중편이라 할 법한 작품까지 들쭉날쭉한 분량의 소

설들을 자유롭게 배치시키는데,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그중 분량이 가장 긴 축에 속한다. 그렇기에 배경의 설명이 보다 상세하고, 여러 인물의 개인사가 비교적 친절히 설명된다.

알 수 없는 공간에 세워진 수용소에 '괴물'이라 불리는 이들이 갇혀 살고 있다. 목소리로 살인자들의 폭력 본능을 각성시키는 30대 남자, 머리카락에 분노를 쌓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20대 남자, 온갖 바이러스의 슈퍼 보균자인 60대 남자, 무덤을 파 시체로 배를 채우는 소년. 서술하자니 괴물이라 불러 마땅하고, 외딴 곳에 격리하는 아주 얇은 버리든 해야 할 것만 같지만, 정세랑 월드에서 그러한 혐오와 폭력은 없다. 그들은 그들의 핸디캡 혹은 개성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고, 그것을 제거할 것인지 그것을 간직한 채 사회와 떨어질 것인지 선택한다.

갑작스레 수용소에 갇히게 된 그들 또한 지극한 이타심으로, 본인도 모르게 사회에 미친 악한 영향력에 괴로워하며, 자족적 시간을 보낸다. 그들 앞에 나타난 변수는 사랑이다. 승균은 새로운 수용자인 연선을 사랑하게 되고, 연선을 위해

수용소의 규칙을 깨뜨린다. 연선은 수용소를 탈출해야만 하고, 그들은 그런 연선을 돕는다. 다른 수용자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도움을 그들에게 준다.

책의 마지막 작품 '7교사'는 현대사 수업 시간이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여섯 번째 대멸종 이후의 세계다. 그곳의 학생들 그러니까 22세기 이후의 청소년은 지금의 세계를 어떻게 공부하며 이해할까. 우리는 17-18세기 사람들보다는 지혜롭지만 22세기 사람들보다는 어리석다. 동물을 죽여 가죽을 입다가 한두 해 후에 버리는 사람들이다. 기아 어린이를 구할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하는 대신 가족에게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가 진정 괜찮은 종(種)일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이대로 지구를 지배하며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정세랑의 소설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질문은 정세랑이 작가로서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의 증명이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위해 우리는 정세랑의 소설을 더욱 더 널리 읽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유방암의 면역 치료



조현정 청연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장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을 저하, 모유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 기간이 증가한 점 등에 관련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은 70.4%로 전보다 높아지고 있고, 그중 유방암은 93.2%로 생존율이 높은 암에 속하지만, 암세포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10년 후에도 재발되거나 전이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은 미국, 유럽에 비해 폐경전인 40대 젊은 환자의 발생률이 높아져 재발 방지, 치료 후 회복 등이 더욱 중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상생활 수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이다.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때문이며 체중이 증가하면 대사 기능도 떨어지므로 재발 위험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채소, 과일 등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으면 암이 진행된 정도와 발병 부위, 크기에 따라 적절한 요법과 수술 등이 이뤄진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 정상 세포도 많이 약화돼 통증, 구내염, 소화 장애, 불

면, 피로, 림프부종, 말초 신경 저림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환자 삶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 삶의 질을 높이려면 면역력 강화가 꼭 필요한데, 면역력이 높아지면 항암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욱 쉽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사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 중 부작용 완화 및 전이,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 방법인 통합 면역 암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이 치료는 암 표준 치료법을 진행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가해 암세포 괴사와 자연사를 촉진함으로써 암세포 사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농도의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하면 활성 산소를 제거,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플라젠 생성을 활발하게 해 항암,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

씨이모신알파와 미슬도 주사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표면 항원 물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한의학적인 치료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왕뜸 요법은 복부 등에 뜸 치료를 해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통증 감소와 소화력이 강화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약침 치료는 항암 효과, 면역 기능 강화 효과가 입증된 한약재의 성분을 추출해 정제된 약액을 경혈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할 수 있고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액 순환의 효과가 있다. 비슷한 효과가 입증된 한약재를 선별해 개인에 맞춰서 환약, 탕약으로 투약하기도 한다. 침치료는 암으로 인한 통증,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근육통, 말초 순환 장애로 인한 저림 증상 등에 효과적이다.

40-50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많은데, 갱년기와 겹치는 시기이다. 갱년기를 겪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환자들은 유방 수술로 인한 여성으로서 정체성 상실, 폐경 등과 더불어 감정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고, 불안, 두려움, 우울감 등을 더욱 자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 매일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붙여넣고, 나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

社說

맥쿼리 지원금 더 줄여 혈세 낭비 막아야

광주시가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을 당초 예상보다 130억 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의 연속 보도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 환급금 70억 원을 돌려받고 법인세 지원금도 대폭 줄인 덕분이다.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4억 원이었던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는 12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016년 12월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9년 지원금으로 추정했던 251억 원에 비해 132억 원을 절감한 것이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광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고, 최소운영 수입분 법인세 18억 원을 이중 지급했다"며 불리적인 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분 재정지원금에서 기존 환급금 70억 원을 우선 귀속 조치했다.

비위생적 음주 측정 '우한 폐렴' 안중에 없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평상시와 똑같이 음주측정기 소독도 없이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엇그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을 돌며 우한 폐렴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비위생적인 음주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도심 곳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서 광주 68건, 전남 52건 등 총 120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문제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경찰청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평상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과 불안

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에 살고 있는 회사원 A(38) 씨는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밤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침 등이 묻은 음주측정기에 입술이 닿아 불쾌했다며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따라서 현행 음주 운전 단속 방식은 개비위생적인 음주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서는 측정기를 소독하거나 앞 사람의 타액을 닦아내는 조치를 취하는 등 즉시 모를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음주측정기로 인한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선 메르스 당시처럼 음주 운전 징후가 있는 운전자에게 대해 선별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음주측정기 소독 등 위생적인 음주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 어른이 된 후 갖게 된 직업은 정말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만 울컥했다. 사랑스럽고, 위로가 되고, 엔지이 세상이 살 만하다고 느껴졌다. 요즘에는 그림책 읽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시니어 그림책 '백화만발'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결에서 맡았이 응원해 주는 '속 깊은 친구'처럼 그림책은, 많은 위로와 의지가 된다. 얼마 전 위 선생님으로부터 그림책 추천 카톡 문자가 왔다. 라울 니에도 구리디의 '두 갈래 길'이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無等鼓

최근 '같은 책'을 몇 권 구입했다. 가까운 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다. 그동안 마음에 드는 책을 여러 권 사서 누군가에게 전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내가 구입한 건 그림책이다.

그 '그림책'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문화예술공간 '집'에서 열린 전시회에서였다. '책문화공간 봄'이 기획한 행사장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자수책·서자·세밀화 등이 전시됐고, 그림책과 동화책도 여러 권 놓여 있었다. 여기에서 전시를 기획한 '봄'의 위명화선

그림책 읽는 어른

가 어른이 된 후 갖게 된 직업은 정말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만 울컥했다. 사랑스럽고, 위로가 되고, 엔지이 세상이 살 만하다고 느껴졌다. 요즘에는 그림책 읽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시니어 그림책 '백화만발'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결에서 맡았이 응원해 주는 '속 깊은 친구'처럼 그림책은, 많은 위로와 의지가 된다. 얼마 전 위 선생님으로부터 그림책 추천 카톡 문자가 왔다. 라울 니에도 구리디의 '두 갈래 길'이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기 고

노인과 과수원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아저씨 이거 무슨 나무예요?" "참다래요!" "참다래? 참다래가 뭐지?" "앗따- 키위도 모르요? 키위!" "아하! 꼭 포도나무 같네요. 근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요. 겨울에 전지 작업을 안 해 불면 키위가 제대로 안 열려 버려요" "위메, 이 넓은 과수원의 가지치기를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라운 별수 있겠소? 젊은 아들은 씨도 없으께임~"

이렇게 시작된 오지라퍼와 노인 농부의 시시콜콜한 대화를 들으니 슬그머니 직업병이 도진다. 광주-전남 지역 경제를 분석하다 보면 우울할 때가 많다. 가 구당 소득 수준, 청년 고용률, 재정 자립도, 고령화율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많은 경제 지표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남이 전국에서 최상위를 기록 중인 것들도 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아내와 심심풀이 토크 중인 농부와 관련된 지표가 아니던가? 우선 전남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

(GR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평균(3.4%)을 크게 상회한다.

경지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도 전남이 30만 명으로 경북(37만 명)에 이어 2위이다. 경지 면적이 넓은 만큼 쌀 등의 식량 작물과 채소류의 생산량도 전체의 20%를 상회해 이 또한 전국 일등이다. 뭐니 뭐니 해도 친환경 농산물 관련 농가 수와 친환경 인증 수 및 출하량은 전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정도의 농업 인프라를 갖추었으면 농업에 관한 한 전남이 최고이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글세울시다'이다. 우선 전남의 농가 소득(3950만 원)이 9개 광역도 중에서 6위에 불과하다. 전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채소, 쌀의 농가 소득이 과실류에 비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전남 지역 농업의 토지 생산성(경지 면적당 농업 생산량)은 도 지역 가운데 꼴찌이다. 경지 면적은 가장 넓지만, 노동 집약도(경지 면적당 노동 시간)와 자본 집약도(경지 면적당 자본 투입액)가 전국에 비해 낮아서 그렇다. 전

남 지역 농가의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도 23.8%로 전국 평균(25.0%)에 비해 낮다 보니 유통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화 기기를 이용해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농업 소득 증대에 활용하는 농가 비중도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전남이 우수한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 때문이다. 특히 전남 농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9.5%에 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고령화 때문에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인프라를 활용 못한다고 나쁘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 바로 전남이 청년 농부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와 땅이란 뜻이 아닌가? 청년들이 젊음의 역동성으로 과실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비중을 높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정보화 기기를 적극 활용할 경우 유통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금도 되고 과수원의 노인 농부는 젊은이들이 씨도 없다고 한탄한다. 전국의 청년들이여! 전국 최고의 전남 농업 인프라와 젊은 열정을 결합해 보자. 전남에서 돈 버는 법, 의외로 거기서기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광주)		우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